

양파·밀가루값 너무 오르네...식당 사장들의 '눈물'

양파 2배·밀가루 70%...식자재값 평균 1년새 18% 올라 광주 지역, 시중보다 저렴한 '착한 가격 업소'도 감소세 "음식값 올리면 손님 줄고 그대로 두자니 손해 보고" 푸념

"음식값을 올릴 수도 없고 끊임없이 오르는 식자재 값에 부담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광주시 동구에서 중국집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음식값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 고물가 상황에서 식자재 가격이 천정부지로 상승하다 보니 "손해를 보고 장사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는 게 그의 푸념이다.
A씨는 자장면 한 그릇을 8000원에 판매 중인데, 밀가루를 비롯해 양파와 돼지고기, 춘장까지 가

격이 오르지 않은 식재료가 없다고 한다.
현재 사용하는 20kg짜리 밀가루 한 포대 가격은 지난해 1만8000원 선이었으나, 1년 만에 3만500원까지 올랐다. 무려 70%가 오른 셈이다.
중국음식점의 필수 식재료인 양파는 한 방(20kg) 가격이 3만4000원으로, 작년(2만4000원)보다 1만원 상당 올랐다.
A씨는 "모든 식자재 값이 올랐고 관리비에 인건비까지 인상돼 가격 인상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가격을 올리면 손님이 줄고, 그대로 두자니 남는 게 없어 미칠지경이다"고 하소연했다.
기약 없는 물가 고공행진에 자영업자들이 베팅 끝에 내몰리고 있다. 음식을 만들 때 들어가는 각종 재료의 가격이 나날이 오르면서 음식값을 올리지 않으면 손해를 볼 처지에 놓이고 있다.
실제 푸드테크 스타트업 마켓보로에 따르면 외식사업자 전용 식자재 구매 앱 '식밥'에서 판매되는 식자재 2015개의 가격은 지난해 말 기준 전년 대비 17.6% 올랐다.
특히 식자재 총 2015개 중 84.4%에 달하는 1701개의 가격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값이 내린 품목은 9.4%(190개)에 불과했고 가격 변동이 없었던 품목은 6.2%(124개)였다.
대표적인 외식 메뉴인 자장면 재료를 살펴보면 밀가루(제면용 20kg)는 1년 새 15.5% 올랐고 식

용유(18ℓ)는 22.0%, 춘장(볶음춘장 10kg)은 8.8% 각각 상승했다.
식당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식재료 중 하나인 양파(15kg)는 182.5%나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식당에서 많이 쓰는 단무지는 10.2%, 참치캔은 39.5%, 자연산 치즈는 34.8% 올랐다. 또 멸균우유(1ℓ)는 22.8%, 스위트콘 가격은 121.2% 상승했다.
이처럼 식재료의 가격은 30%에서 두 배까지 급등했으나, 광주지역의 자장면, 김치찌개, 비빔밥 등 8대 외식 상품 가격은 10% 안팎 수준이었다. 식자재 가격 상승률에 비해 음식 가격의 상승률이 적다는 점에서 외식업계의 마진이 줄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각종 식재료 가격이 크게 오르자 다른 가게들보다 저렴한 가격에 음식을 판매해왔던 '착한 가격업

소'도 버티내지 못하고 있다.
광주지역 5개 자치구에 따르면 광주 시내 착한 가격업소는 지난 2020년 207곳에서 지난해 말 195곳으로 12곳(5.8%) 줄었다.
착한 가격업소는 행정안전부가 주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장사하는 식당, 마용실, 목욕탕 등을 조사해 인증하고 쓰레기봉투 제공, 수도 요금 감면 혜택 등을 주는 제도다.
하지만 고물가를 버티지 못해 스스로 인증패를 반납하고, 음식 가격을 올리고 있다는 사례가 속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결국 착한 가격업소 지정 폐지를 요청했다는 한 식당 운영자는 "꽤 오랜 기간 착한 가격업소로 지정받아 가게를 운영했는데 도저히 불가를 감당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은행, 직업체험 테마파크 '키즈라라 카드' 출시

30% 현장할인·주유 캐시백 등

광주은행은 지난달 30일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 '키즈라라'에서 고병일 광주은행장과 문팔갑 ㈜키즈라라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협약을 맺고, '키즈라라 제휴카드'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광주은행은 지난달 10일 개관한 호남지역 최초의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 키즈라라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금융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키즈라라와 상생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키즈라라 제휴카드는 ▲입장권 구입 시 최대 10만원 이용 한도 내에서 30% 현장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키즈라라 입점 F&B(Food&Beverage, 식음료시설) 이용 금액의 10% 캐시백 ▲전국 주유소 리터당 50원 캐시백 ▲대형마트 이용 금액의 5% 캐시백 ▲서적·문구·완구 업종 이용 금액의 5% 캐시백 ▲아웃백·VIPS 이용 금액의 10% 캐시백 등 어린 자녀를 둔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다양한 가맹점에서 카드 이용 시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올해 12월 31일까지 키즈라라 제휴카드를 포함한 광주은행 모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키즈라라' 입장권 구입 시 10% 현장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우리지역에 최초로 들어서는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가 아이들의 꿈을



고병일(왼쪽) 광주은행장과 문팔갑 ㈜키즈라라 대표가 '키즈라라 제휴카드'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키우기,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키즈라라는 지난 2012년 폐광지역 경제 진흥을 위해 한국광해광업공단 250억원, 강원랜드 200



광주세무서, 공익법인 실무자 사전교육

광주세무서(서장 나향미)는 최근 관내 공익법인 실무자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
이번 사전교육은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납세협력 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광주세무서는 공익법인의 사회적 역할과 중요성을 감안해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투명성 강화를 위해 여러 납세협력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교육활동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의무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다각적인 세정지원 활동을 약속했다.
이날 교육은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사항 안내, 의무사항별 월별 세무일정 소개, 출연재산 보고 및 결산서류 공시 휴택스 제출 방법, 전년 결

산서류 공시 오류 항목 20선 설명 등 실무자에 직접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나향미 서장은 "앞으로도 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형 교육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공익법인들의 생생한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고 현장 의견을 세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신선행은 국세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세무서는 세정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년도 무신고자, 신규 공익법인 등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추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추가 교육은 휴택스를 이용한 신고방법을 중심으로 설명 동영상, 휴택스 시연 등 참석자 눈높이에 맞게 준비할 방침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전남신보, 광주·기업은행 '금리상한' 업무 협약

전남신보보증재단은 전남도내 청년사업자 등 취약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최근 광주은행, 기업은행과 금리상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금리 상한 협약은 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사업자 및 사회적 취약계층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재단 이용

고객은 5% 초반의 금리로 보증서를 이용할 수 있다. 대출금리가 평균 6~7%대인 점을 감안하면, 약 1~2% 수준의 이자 절감효과가 예상된다.
신청 가능한 대상은 도내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저소득자, 다문화, 다자녀 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과 만 45세 이하 청년사업자이며, 상담 및 접수는 전남신보보증재단 각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이 외에도 전남신보는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전라남도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다. 이를 통해 1년간 총 0.6~0.8%의 보증수수료를 지원해 주고 있다.
정광수 전남신보 이사장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으로 경제적 기반이 약한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고통은 더욱 클 것"이라며 "고금리 기조 속 소외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금융회사와 협업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경총 '금요조찬포럼' 4월 일정 나와

일반인도 참여 가능

광주경제자총협회(회장 양진석)가 매주 금요일 개최하는 '금요조찬포럼'의 4월 프로그램 일정이 나왔다.
2일 광주경총에 따르면 오는 7일 김찬호 성공회대 초빙 교수가 '유머 감각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4월 첫 강연 포문을 연다.
이어 14일 금요조찬포럼 '1600화'를 맞아 최진석 서강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이후 21일에는 김태영 AIFactory 대표이사가 '리더가 알아야 할 챗GPT 활용사례'를 주제

로, 28일에는 최정욱 JM컨설팅 대표가 '한계를 정하지 않고 일하는 즐거움'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광주경총이 매주 금요일 열고 있는 금요조찬포럼은 우리나라 민간단체 최장수 조찬포럼으로 꼽힌다.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주경총은 국내 최고의 각계전문가와 저명인사를 초청해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경총 금요조찬 포럼은 매주 금요일 오전 7시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열린다. 광주경총 정회원들은 무료로, 일반 참가자는 당회 2만원, 연 50만원의 참가비를 납부하면 포럼에 참여해 강연을 들을 수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

광주상의 4일 '기업이 한눈에 재무제표 분석' 교육

광주상공회의소(회장 정창선)는 지역 기업체 임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오는 4일 오전 10시부터 '기업이 한눈에 보이는 재무제표 분석' 교육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재무제표의 기초개념과 작성법, 재무구조 분석방법 등에 관한 강좌를 통해 기업 재무구조 분석 및 판단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안산대학교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최재운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재무제표의 기초개념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재무제표를 통한 기업 분석(유동성, 안정성, 수익성 등) 등 재무제표 작성과 분석에 대한 이론 및 실무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약 7시간 동안 강연을 할 예정이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재무제표 분석은 기업의 내재가치와 성장성을 판단하는 중요 지표로 기업 경영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면서 "앞으로도 기업이 필요로 하는 교육, 설명회 등을 개최해 지역 내 기업 근로자의 역량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 및 신청관련 문의는 광주상의 홈페이지(www.gjcci.or.kr)를 참고하거나 회원사업본부 전화(062-350-5883)로 문의하면 된다.
/박기용 기자 pboxer@

■ 로또복권 (제1061회)					
당첨 번호					
4	24	27	35	37	45
등위					
당첨금(원)					
당첨지수					
1	6개 숫자 일치	2,422,768,773	11		
2	5개 숫자 + 보너스숫자 일치	44,866,089	99		
3	5개 숫자 일치	1,479,102	3,003		
4	4개 숫자 일치	50,000	145,857		
5	3개 숫자 일치	5,000	2,425,576		



인기 와인 저렴하게 만나세요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오는 9일까지 지하 1층 행사장과 본매장에서 2023년 첫 와인 행사를 진행한다. 그랑 피씨오네 2만3000원, 반피 로사리갈 2만8000원, 프레시넷 로제 스파클링 2만2000원 등 인기 와인을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이며, 구매 금액대별로 5%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하는 행사도 함께 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